

## “국회서 역사 쿠데타” ... 5·18 망언에 들끓는 광주

5·18단체 천막 단식농성  
 상경투쟁단 모집 나서  
 “지만원 구속해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직 사퇴 때까지 투쟁”

자유한국당과 극우보수세력의 끊임없는 '5·18망언'에 대해 광주·전남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5·18 유공자들은 망언을 한 국회의원이 사퇴하고, 지만원씨가 구속될 때까지 단식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10일 5·18단체 전국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서울 국회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8일 5·18 망언이 나온 자유한국당의 공청회 이후 상경투쟁단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는 5·18강원동지회, 5·18전북동지회, 대전총청5·18유공자회, 부산울산경남5·18유공자회, (사)5·18서울기념사업회 등으로 참여 회원수는 6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지만원씨가 구속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단체는 한국당 지역사무실 항의 방문 집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광주시와 연계해 법적 투쟁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후식 부상자회장은 “광주시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법적 조치, 항의 방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한국당 의원들과 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다.

해외에서도 5·18 망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미주지역 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는 10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북미지역 민주인사들은 지만원과 자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지만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발언으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10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내 유영보관소를 찾은 한 가족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고인들을 위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런 해괴하고 허무맹랑한 거짓을 의도적으로 유포시킨 공청회를 방치한 자유한국당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만원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씨는 “5·18은 복귀가 짝어서 힌츠페터를 불러 독일 기자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하게 한 것”이라고 북한군 개입설을 또 다시 주장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베트남 하노이 청와대 “문재인·트럼프 조만간 전화 통화”

오는 27~28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뒤 서울을 찾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했다.

<관련기사 2면>

청와대 관계자는 “정 실장과 비건 대표 간 면담은 오후 4시부터 50분 동안 이뤄졌다”며 “정 실장이 (비건 대표로부터) 평양에서 이뤄진 실무협상 결과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정 실장과 면담에서 6일부터 사흘간 평양에 머무르면서 북한과 진행한 실무협상 결과를 비롯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정 실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해 북미 실무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방북 협의가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상 차원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

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정상은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전화 통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조만간 회담할 예정이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긴밀히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북미가 17일 이후 아시아 제3국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시민도 주주로 참여한다

시민주주공모방식 추진

광주시·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합작법인에 시민도 주주로 참여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노동자참여합작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의 ‘전국화’와 ‘전산업화’에 나선 가운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의미 있는 시도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투자협약 체결식 이후 2주만인 오는 14일 현대차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협약에 들어간다. 이번 협의에는 박병규 일자리 특보, 손경중 전라산업국장 등이 참석한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 지지가 높음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합작법인 주식의 일정 수준을 시민주주공모방식으로 채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합작법인의 총자본금은 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28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시와 현대차의 복안이다. 이미 광주시가 590억원(21%), 현대차가 530억원(19%)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680억원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시와 현대차는 당초 지역상공인 및 지역기업, 현대차 관련 기업, 공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었다. 여기에 시민과 노동계도 참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자기자본금 모집을 달성하고, 이사회를 노사민정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시민주주공모가 성공을 거둔 적이 거의 없어 조심스럽

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업은 전망이 밝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시민 여망을 감안할 때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시와 현대차, 지역노동계가 더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와 함께 합작법인의 자기자본금 외 나머지 자금 4200억원은 재무적 투자자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하기로 하고 신속하게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과 관련 “상반기에 잘하면 최소한 한 두 곳은 굶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형 모델은 결국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제1호”라면서 “지역마다 특색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기동병원 3·1운동 본부였다 ▶6면



KIA 오키와 캠프 주전경쟁 시작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3·1 운동 100주년 제54회 3·1 마라톤  
 3월 1일(금) 오전 8시30분 문화전당 출발

SWITCH TO EQ

###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초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연일 20 (초음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sub>2</sub>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